전남 20대 농민 '1만명' 붕괴…고령비율 53.1%

농민 29만551명 3.7%↑…65세 이상 15만4276명 13.2%↑
20~30대 농민 1년 새 3680명↓…10ha 이상 '대농' 전국 최다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이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1%로, 10년 전보다 1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17일 통계청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전남 농가는 전년보다 6.6%(9052가구) 증가한 14만6024가구, 농가인구는 3.7%(1만491명) 늘어난 29만55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농가는 103만1210가구로, 전년보다 0.4%(3983가구) 감소했다. 농가인구는 231만4064명에서 221만5498명으로, 4.3%(-9만8566명) 줄었다.

광주 농가는 11.8%(-1968가구) 감소한 1만4708가구, 농가인구는 11.2%(-4470명) 줄어든 3만5403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남 농가인구가 1년 새 1만명 넘게 늘었지만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만8000명 가량 늘어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남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지난 2020년 13만6227명에서 지난해 15만4276명으로, 13.2%(1만8049명) 증가했다.

70대 농가인구는 8.2%(6만9228명→7만4882명) 증가했으며, 80세 이상 인구는 무려 26.5%(3만1592명→3만9978명) 늘었다.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20~30대를 포함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농가인구가 줄었다.

농촌 고령화 추세 속에서 지난해 전남 20대 농가인구는 '1만명 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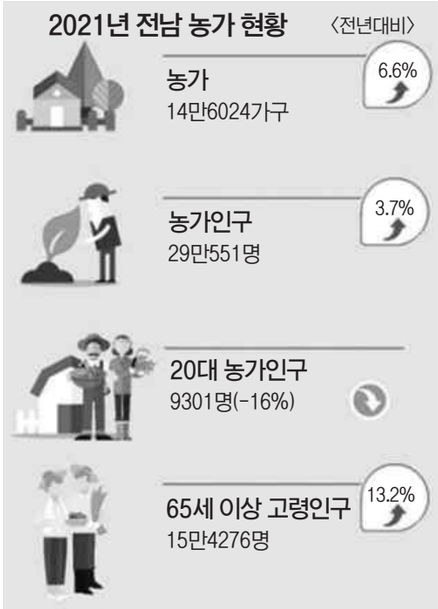
전남 20~30대 농가인구는 1년 새 3680명 감소했다.

전남 20대 농가인구는 9301명으로, 전년(1만1069명) 보다 16.0%(-1768명) 줄었다. 30대 농가인구도 9960명에서 8048명으로, 19.2%(-1912명) 줄었다.

10년 전인 2011년 1만5001명이었던 전남 20대 농가인구는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해 1만명을 밑돌았다.

40대 농가인구는 6.4%(-1252명) 줄어든 1만8431명이었고, 50대는 8.8%(-4068명) 감소한 4만228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남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53.1%로, 전년(48.6%)보다 4.5%포인트 증가했다.

전남 농민의 절반 이상이 고령이라는 뜻으로,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지난 2011년 41.0%(37만9767명 중 15만5788명)에서 지난해 53.1%로 12.1%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광주 농가인구 3만5403명 중 36.7%(1만3009명)가 65세 이상 농가인구였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농가 수는 14만6024가구로, 전년(13만6972가구)보다 6.6%(9052가구) 증가했다.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 비율은 62.1%에서 66.5%로, 1년 새 4.4%포인트 증가했다.

65세 이상이 경영주인 전남 농가는 2020년 8만5097가구에서 지난해 9만7151가구로, 14.2%(1만2054가구) 늘었다.

경영주 나이가 65세 이상인 전남 농가 비율은 지난 2011년 56.8%에서 지난해 66.5%로, 10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경지규모별로 농가를 나눠보면 전남에서 1ha(1만㎡) 미만 농사를 짓는 농가는 전체의 67.1%(9만7924가구)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비율은 73.2%(103만1210가구 중 75만4526가구)였다.

전남 농가 가운데 경지가 없는 농가는 1182가구로 집계됐다.

10ha 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는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2539가구로 집계됐다.

경지규모 10ha 이상 '대농' 수는 전남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전체(9670가구)의 26.3%를 차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연구성과보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5일 '2022 KREI 연구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보고회는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열렸으며 유튜브(youtube.com/kreipr)에서 생중계됐다.

이번 연구성과보고회는 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정부와 지역사회, 전문가,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회 발표를 통해 농업·농촌 정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5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식량안보 확보'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미래농업 혁신' '도농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재생' '청년 농업인력 육성과 유입 확대'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이었다.

주제마다 각 15분 분량 발표 2건과 토론이 진행됐다.

김홍상 원장은 "연구성과보고회에서 발표될 정책 제언들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더욱 발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동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영암 유채꽃 축제장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지난 15일 영암 월출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첫 번째) 관계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전남농협은 지난 15일 영암 월출산 경관지구 '유채꽃 축제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영암에서 난 고구마를 나눠주기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 답례품으로 주게 된다. 기부금의 30%까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남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전남농협은 지역 독창성을 살린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에 힘쓰고 있다.

각 농협별로 가격, 출하시기 등을 고려해 다양한 답례품 선택지를 만들어 도시민 기부자의 선택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마을기업, 청년창업농 등이 생산한 제품과 농축산물을 꾸러미로 묶은 답례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고향세 제정 취지는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도모, 지역 소멸방지"라며 "내년 시행되는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농업·농촌 발전이라는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기업 지원 강화

5월9일까지 기업 공모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등 지원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오는 5월 9일까지 전남지역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의 R&D 과제기획 및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기업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 기업은 나주, 장성, 함평, 영광 등 전남 국가 혁신클러스터에 사업장 또는 부설 연구소를 둔 에너지 관련 기업(예정기업 포함)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국제 및 국가 R&D 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위원회 운영 지원,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조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 연구원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R&D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 시장 판로개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 산업부 공모로 선정됐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국비 26억원 등 100억원 규모로, 지역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해 투자 유치부터 기업 지원까지 지역 대표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T, 콘텐츠진흥원과 저탄소 식생활 실천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K-문화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 농수산 식품 수출 활성화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aT가 진행하는 '코리안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도 동참하며 환경 개선을 위한 ESG 가치 실천에 힘쓰기로 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두 기관은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해외에까지 저탄소 식생활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